

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



- 

사고가 발생하면 사이렌, 방송 등으로 사고를 전파하고 작업자 및 인근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.
- 

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소방서(119), 경찰서(112), 고용노동(지)청(1350), 관할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한다.
- 

신고내용은 언제, 어디서, 어떤 이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지와 피해 상황 등 사고정보를 포함한다.
- 

가스, 위험물질 공급 밸브류는 신속히 닫아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한다.
- 

급성중독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.
- 

질식사고 구조를 위해 긴밀히 밀폐 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(또는 송기 마스크)를 착용한다.
- 

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, 적절한 호흡보호구가 없으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.
- 

공사장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.
- 

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가급적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 추가 붕괴위험을 조심해야 한다.
- 

공사장 밖에 있는 근로자 및 주민들은 추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 현장에 접근치 않도록 통제한다.
- 

사고지역은 수습요원 이외에는 접근을 막고 출입을 통제한다.

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



-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끼면 모든 근로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- 지진 발생 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약 1~2분이므로, 이 시간동안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.
- 여진은 지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지진에 취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활동 시 여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.
- 독성가스 누출, 건물 붕괴, 화재·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안전한 공간으로 긴급 대피한다. 단, 지하층으로 대피해서는 안 된다.
-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전기·가스 등을 차단한다.
- 지진 발생 초기에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.
- 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, 탑승 중일 때에는 긴급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한다. 만일 갇혔을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한다.
- 큰 진동이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. 또한 블록담이나 고정되지 않은 물건 등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.
- 지진 시 대피 및 피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조한다.

